

석 사 학 위 논 문

무용창작 작품 “굴레”에 관한 연구

2015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김 소 연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박인숙

무용창작 작품 “굴레”에 관한 연구

Analysis on the work of the confines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김 소 연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박인숙

무용창작 작품 “굴레”에 관한 연구
Analysis on the work of the confines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김 소 연

김소연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굴레 작품에 대한 분석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김 소 연

본 논문은 굴레라는 주제 안에서의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다. 인간이라는 매개체는 이성과 감성을 갖추고 있다. 그것들은 생각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며, 그 생각은 인간 존재의 발전을 위함이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된다.

우리들은 항상 생각한다. 더 높은 곳을 보며, 더 충족시키고 싶어 한다. 매년, 매 시간, 매 순간 항상 더 높은 위치로 오르기를 갈망하지만 이 생각들의 시간 속의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다. 목표를 달성했기에 더 높은 것이 보이고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했지만 변화되어진 곳에 서서 또 같은 생각들을 반복한다.

이런 생각의 반복성을 보고 굴레라고 표현하고 싶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마냥, 우리들은 스스로의 족쇄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굴레라는 존재의 틀에 갇혀버린 나 자신을 보고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도전이라 생각하고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이 작품을 통해 굴레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되었으며, 한 번쯤은 되돌아보며 숨을 고를 필요도 있겠지만 나 자신의 위치에서 아직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배움은 끝도 없으며, 투자한 시간만큼 얻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주요어】 굴레, 시간, 목표, 반복성, 변화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	---

II. 작품개요	4
----------------	---

2.1 작품의 형식 및 구조	4
-----------------------	---

2.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5
---------------------------	---

III. 작품분석	9
-----------------	---

3.1 장면 1: 굴레의 두려움.	9
-------------------------	---

- 1) 내용 및 안무의도
-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 3) 음악
- 4) 무대장치 및 조명

3.2 장면 2: 서로에게 굴레가 되다.	12
-----------------------------	----

- 1) 내용 및 안무의도
-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 3) 음악
- 4) 무대장치 및 조명

3.3 장면 3: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17
-----------------------------	----

- 1) 내용 및 안무의도
-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 3) 음악

4) 무대장치 및 조명	
3.4 장면 4: 굴레의 반복	20
1) 내용 및 안무의도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 음악	
4) 무대장치 및 조명	
IV.결론	23
참고문헌	24
부 록	25
ABSTRACT	27

표 목 차

<표 1> 장면 특성	2
<표 2> 움직임 표현 방법	5
<표 3> 빛의 방향별 특성	7

그 림 목 차

<그림 1> 플로어 패턴	10
<그림 2> 조명플랜	11
<그림 2-1> 조명 플랜	11
<그림 3> 수평적 실뜨기	13
<그림 4> 대각선적 실뜨기	14
<그림 5> 수직적 실뜨기	14
<그림 6> 플로어 패턴	15
<그림 6-1> 플로어 패턴	15
<그림 7> 조명 플랜	16
<그림 7-1> 조명 플랜	16
<그림 8> 플로어 패턴	18
<그림 9> 조명 플랜	19
<그림 9-1> 조명 플랜	19
<그림 10> 플로어 패턴	21
<그림 11> 조명 플랜	22

사 진 목 차

<사진 1> 상의 의상	6
<사진 2> 하의 의상	6
<사진 3> 굴레의 두려움	10
<사진 4> 서로에게 굴레가 되다.	13
<사진 5> 수평적 움직임	13
<사진 6> 대각선적 움직임	14
<사진 7> 수직적 움직임	14
<사진 8>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17
<사진 9> 굴레의 반복.	20

I. 서론

본 연구는 굴레에 대한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로 끊임없이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굴레에 대해 현대무용으로 만들어진 작품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 존재의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계속되는 삶 속에서 교훈을 얻어가는 진화의 길, 또 하나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깨달음의 길이다.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일상이라는 삶 속에서 진화의 길을 걷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¹⁾

진화의 길에서 우리들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를 만난다. 굴레라는 내면에 들어가 물어보면 두 개의 자아가 나온다. 행복해지기를 갈망하는 자아와 그 행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아, 알고 있다고 믿는 자아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아, 행동하기를 원하는 자아와 그럴 수 없는 자아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조건 주어져 있지 않은가?

여기서 우리 삶의 진화에 목적을 두자면 에너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두려움’으로 대표되는 부정적 에너지와 ‘사랑’이라는 절대 긍정적 에너지이다. 여기서 부정적 에너지 ‘두려움’은 진화의 교훈을 얻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정적 에너지는 고통이라는 부정적인 면과, 우리에게 고통을 통한 영적인 지혜를 가져다준다는 정반대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굴레라는 틀 안에서 벗어난 듯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제기 시키며, 또 다른 굴레가 찾아온다고 느낀다.

두려움이라는 부정적 에너지 속에서 나 자신을 항상 깨뜨려야 성장한다는 생각의 틀에 박혀버린 나를 보며, 언제부터가 시작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제자리걸음만 하는 사람 마냥 매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항상 나에게는 새로운 변화

1) 홍호기(2013). “가슴명상을 통해 만나는 두려움”에 대한 『치유와 사랑으로 깨어나기』. 서울: 보리별 도서출판. pp.36-38.

들이 있었고, 그만큼 나 자신에게도 많은 변화들이 왔었다. 하지만 그 변화
되어진 곳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였다.

굴레는 너무나도 무겁고 두려운 존재이다. 언제쯤이면 나는 굴레 안에서 벗
어날 수 있을까? 엉켜버린 굴레, 차근차근 풀려고 하지만 그 존재는 계속해서
따라온다. 굴레라는 틀 안에서 벗어난 나는 과연 굴레를 벗어난 것일까? 의문
을 던져본다.

한 곳에 잠시 머무를 수는 있어도 영원히 기대지는 못한다. 정상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만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졌고, 무엇이 우리를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지 항상 불안함 속에 완성되지 않는 나를 보며 굴레 속에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굴레의 특성을 보면 실의 양끝을 마주 매면서 두
손에 걸고 양쪽 손가락에 열기설기 얹어서 두 사람이 주고받으며 얹혀버린
실을 풀기위해 여러 가지 형상의 모양을 만드는 실뜨기 놀이를 생각하게 되
었다. <표 1>로 각 장면의 특성을 정리 해보았다.

<표 1> 장면 특성

장면	이미지	표현방법	시간
1장	시간성에 중점	두려움의 표현	1분
2장	관계성에 중점	실뜨기 놀이를 이용	11분
3장	벗어나려는 이미지	계속해서 벗어나려는 몸짓을 이용	2분
4장	관계성에 중점	또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	1분

실뜨기 놀이를 몸을 이용하여 이미지화 하고 실뜨기 놀이의 형태를 움직임 방법으로 찾게 되면서 많은 실험들을 해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두 무용수의 몸에 실을 연결시켜서 각 부위별로 리서치를 해보았다. A무용수는 발목에 끈을 묶었다면 B무용수는 팔목에 연결시키는 식으로 연결부위가 같은 곳도 있지만 다른 부위를 연결해 조금 더 입체적인 움직임을 찾아보려 하였다. 여기서의 한계점은 움직임의 동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서로에게 묶여져 있으니 반응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찾게 된 방법이 무용수 사이에 가상의 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무용수 두 명에서 엮여지고 풀리는 것을 표현해 내는 것이었다.

연구절차는 엮여지고 작용에 의해 풀어지는 하나의 방법으로 다양한 효과를 내기위해 많은 리서치를 해 보았다. 리서치를 통해 연속성과 변화와 공간 그리고, 다양성, 반복성, 방향성, 시간성에 의해 관객들이 이해 할 수 있게 작품 주제를 전달하는 것에 가까워 질 수 있었다.

작업을 하다 보니 많은 방법들 중에서도 시간성과 반복성, 다양성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되었다. 얼마 만큼에 효과적인 움직임들로 신선하게 또는 새롭게 다가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며 얻은 결론이었다.

반복을 하며 관객들에게 주제에 대해 인식시키며, 동작의 변화와 다양성으로 작품을 구성 하여 공연을 보는 재미와 동작의 시간성에 의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굴레에 대한 내용을 더 부각시켜 주었다.

II. 작 품 개 요

2.1 작품의 형식 및 구조

작품을 들어감에 있어서 후기 현대무용의 특징으로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행동 예술이다.”,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떤 동작도 춤이 될 수 있다.”²⁾ 라는 전제하에 주제 안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여러 면으로 표현 가능한 매개체를 찾아보았다.

굴레의 성격은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으로 단순하지만 계산적이고 공간적인 소재를 찾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작품의 표현 방법 중 실뜨기 놀이를 이용해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주제는 추상적이지만 비문학적 안무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작품의 표현방법을 이용한 구조로 ABA형식을 이용해 보았다.

ABA형식으로 굴레라는 것은 인간이기에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마치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윤회적 삶의 구조와 비슷하다.”

3)

굴레는 마치 실뜨기와도 같다. 풀려고 하면 더 엮이게 되거나 풀리지 않고, 풀렸다 하더라도 실뜨기는 실을 끊어내지 않는 이상 다시 시작된다. 이런 실뜨기의 특징을 모티브로 삼아 ABA형식으로 풀어보았다.

2) <http://blog.dreamwiz.com/bird32/1411578>

3) 산트라 커니 민튼(2013). 『안무법 즉흥을 활용한 기본적 접근』. 정옥조(역). 한국학술정보. p.12.

2.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1) 움직임 표현방법

실을 이용하지 않고 두 명의 무용수의 몸으로 가상의 실뜨기를 한다는 움직임 방법을 이용해 연속성, 변화, 다양성, 반복성을 이용해 굴레의 이미지를 보여주려 하였다.

<표 2> 움직임 표현 방법

동기	탐구	기대효과
방향(Direction)	Level을 이용	Level이 대조되었을 때, 서로의 역할이 비대칭 형식으로 극대화 되었다.
모양(Shape)	변형을 이용	방향성과 기하학적인 모양들의 변형들로 역할을 극대화 시켰다.
중력(Gravity)	시간과 공간을 이용	서로의 무게는 시간에 근거했고, 서로의 연결고리는 공간에 근거했다.

2) 의상

작품에 있어 의상은 무거운 색감에 가벼운 재질의 소재로 자연스럽게 몸의 실루엣을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너무 직접적이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몸의 라인과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실크 소재의 상의를 착용하였으며, 두 무용수가 같은 듯하지만 다른 느낌으로 H라인 치마와 일자바지를 착용하였다.



<사진 1> 상의 의상



<사진 2> 하의 의상

3) 조명

의상과 마찬가지로 큰 비중을 둔 조명은 작품의 이미지와 함께 어둡고 가라앉은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였고, 작품 안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의 주요 동작과 공간의 포인트를 foot light(각광)와 back light 조명으로 강조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의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 빛의 방향별 특성⁴⁾

빛의 방향	시각적 선명도	극적 효과	분위기
뒷 광 (back light)	사실적 표현을 위해 사용된다.	극적인 효과를 표현하는데 유용	무거운 분위기
상측광 (high side light)	가시성이 떨어진다.	극적인 효과에 매우 효과적	질감을 잘 보여준다.
전측광 (front light)	선명도가 가장 유용하다.	극적효과를 내는데 약하다.	중성적 분위기
각 광 (foot light)	선명도가 가장 정확하다.	극적효과에 유용하다.	차가운 분위기

4) 고희선, 김창기, 이성호, 이종규, 천세기(2007). 『무대조명Ⅲ』, (주)교보문고, p.41.

3)음악

① Thief- Her name is calla

이곡은 서정적이면서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psychedelic한 몽환적인 음악으로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작품에 있어서 분위기를 더해주었고, 작품의 표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매개체로 이 곡에 나오는 소스 중에서 베이스로 깔리는 탬버린의 효과음을 사용하였다. 무용수들이 몸을 이용해 엮일 때마다 따라오는 탬버린의 소리가 엮여지는 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② Zack Hemsey- The way

음악 도입부의 무거우면서도 감성적인 비트가 장면 3과 장면4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마치 과거를 회상하는 듯이 도입부의 비트를 반복하여 사용 함 으로 써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의 앞 장면을 되새겨 볼 수 있게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비트의 속도와 세기, 그리고 음악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어지면서 분출하는 에너지적인 동작을 행하는 무용수들과 함께 정점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Ⅲ.작 품 분 석

3.1 장면 1: 굴레의 두려움.

1) 내용 및 안무의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의 시간성에 의해 표현하였다. 굴레라는 것은 시간에 의존하여 나타난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움직임 방법에 넣어 표현하였다.

가장 깊은 차원의 원시 무의식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내적 정서들, 즉 황홀, 흥분, 고뇌, 공포, 화, 혐오 놀람의 정서들을 발견한다. 이 차원의 정서적 표현은 너무 강렬해서 개인적 역사나 문화적 의미에 대한 인식이 없다.⁵⁾

심층에서 나오는 동작들의 특성은 독립적이며 비의도적이다. 그 중 공포(두려움)의 순간에 대해 나오는 움직임의 표현을 찾아보았다. 공포의 순간에 시간은 정지된 것처럼 느껴진다. 심장의 두근거림, 근육의 떨림, 어깨의 움츠러듬과 함께 무용수는 압박한 재난에 의해 오금을 못 쓴다.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두려움)라는 것은 더욱 더 크게 인간의 신체를 조여오고 심리적으로 점차 더 큰 압박감을 준다.

장면 1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다음 장면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며, 결론에 대해 먼저 던져주는 방법으로 시작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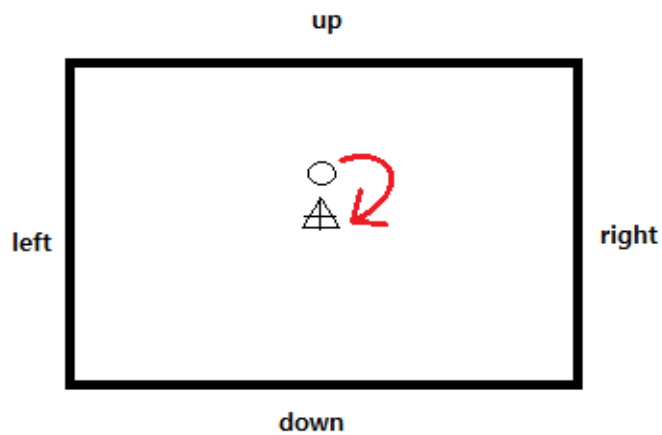
5) 조안 초도로우(2003). 『춤, 동작 치료와 심층심리학』. 임용자. 나혜숙(역). 서울: 물병자리. p.247.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3> 쿨레의 두려움.

두려움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행위들로 근육의 떨림과 수축, 그리고 근육의 이완. 이 세 가지 소스를 이용해서 동작구성 및 움직임의 리듬에 변화를 주어 표현하였다.



<그림 1> 플로어 패턴

3)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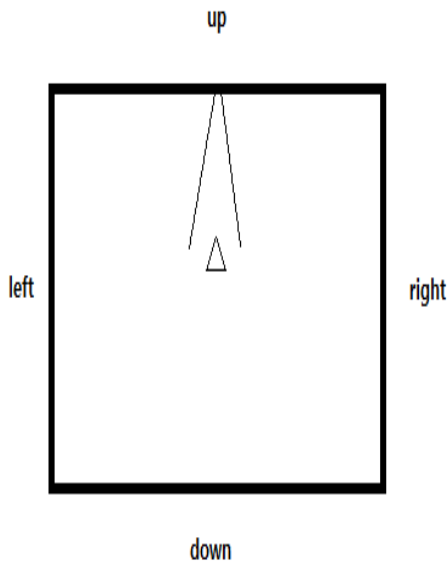
무음으로 무용수가 두려움에 몸부림 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 즉, 숨소리와 동작 수행중인 무용수의 몸이 바닥과 마찰되는 소리를 이용해 효과를 주었다.

4) 무대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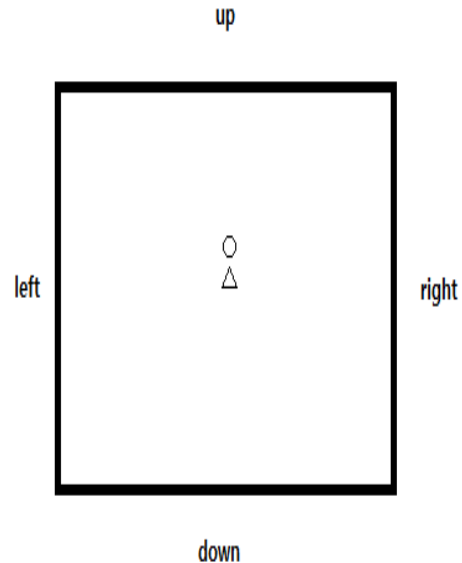
무용수가 실루엣으로 보여 지는 back light조명을 사용하여 두려움의 표현을 극대화 시켜주었다.

위치 center/ 밝기 3%/ 조명 back light →

위치 center/ 밝기 10%/ 조명 전체조명



<그림 2> 조명 플랜



<그림 2-1> 조명 플랜

3.2장면 2: 서로에게 굴레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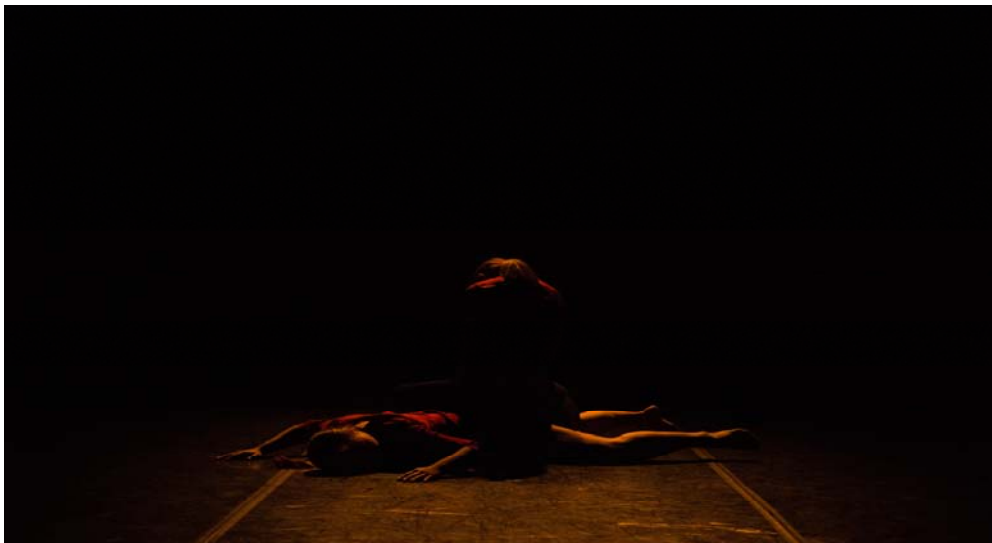
1) 내용 및 안무의도

굴레라는 대상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부딪혀서 깨지는 연습만 해볼 것인가? 알 수도 없는 문제를 계속 걱정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몰입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농담을 던지고, 고난을 헤쳐나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고,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융통성을 기를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밀쳐내는 대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것인가?

두려움과 잘 대처하는 능력은 두려움을 느끼는지 ‘여부’가 아니라 두려움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다. 결국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용기’다. 다시 말해 두려움에 마음을 열고, 두려움과 함께 노력하고, 감정과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해내는 ‘용기’다.⁶⁾

6) 테일러 클락(2013). 『너브』. 문희경(역). 서울: 한국경제신문 한경B.P. p.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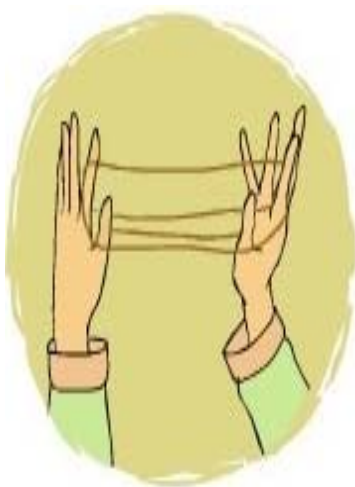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4> 서로에게 굴레가 되다.

굴레의 형태를 실뜨기 놀이를 모티브 삼아 표현해 보았다.

실뜨기 놀이를 모티브 삼는데 있어서 움직임을 수직적, 수평적, 측면적, 대각선으로 표현하여 입체적이고 방향적인 명료성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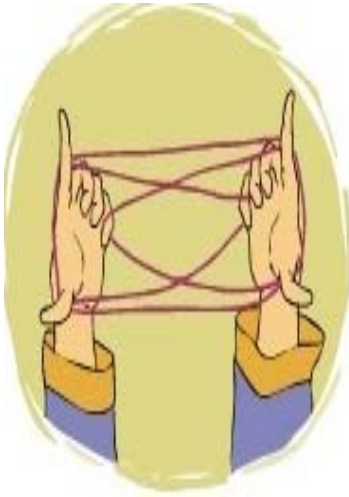


<그림 3>



<사진 5>

<그림 3>과 <사진 5>은 실뜨기 놀이의 수평적인 면을 보여 주었다.



<그림 4>



<사진 6>

<그림 4>와 <사진 6>는 실뜨기의 대각선 모양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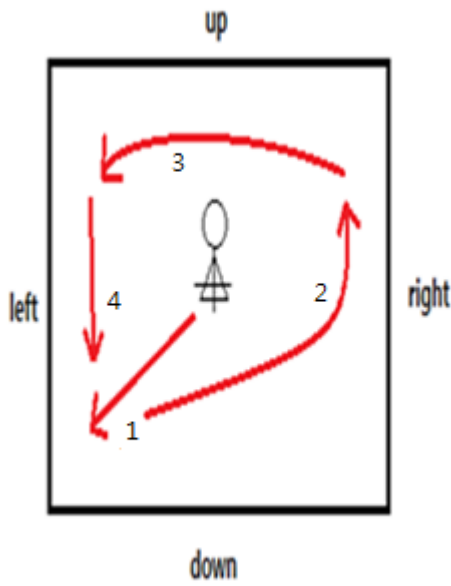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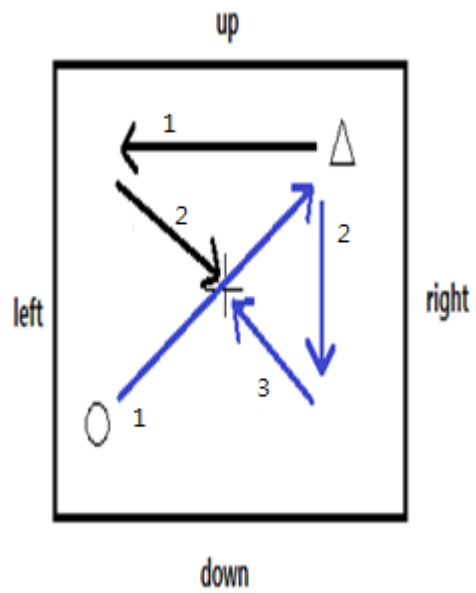


<사진 7>

<그림 5>와 <사진 7>은 수직적인 실뜨기의 모양을 보여 주었다.



<그림 6> 플로어 패턴



<그림 6-1> 플로어 패턴

3)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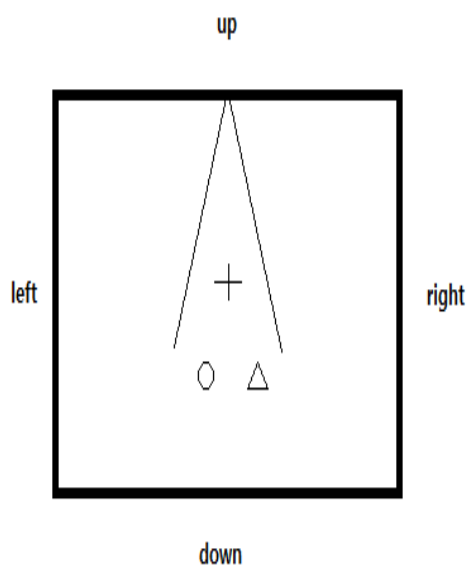
음악의 베이스인 탬버린소리 바탕 안에서 함께 움직임이 작용되어 지도 록 음악의 카운트와 움직임에 카운트를 맞추어 표현하였다.

4) 무대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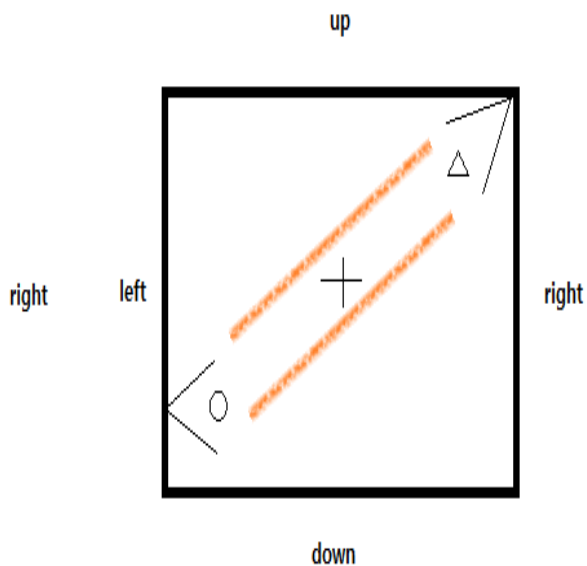
극적인 효과를 위해 back light를 이용하였으며, 서로 연결되어지는 고리의 그림을 보여 주기위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조명을 이용하였다.

위치 center/ 밝기 15%/ 조명 전체 back light →

위치 down left, up right/ 조명 그림자 사용



<그림 7> 조명 플랜



<그림 7-1> 조명 플랜

3.3장면 3: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1) 내용 및 안무의도

굴레라는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두려움을 과감하게 느껴보고, 그것이 진정 두려운 것인지를 경험해 보고 싶었다. 두려움과 만나 벗어나 있을 때 진정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경험을 대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도 해보지 않고, 어떤 답을 얻으려고 욕심을 내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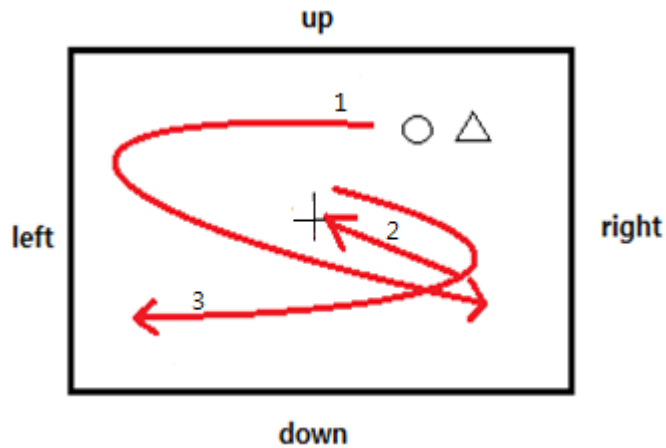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8>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굴레 안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벗어나려는 노력 안에서 계속해서 따라오는 굴레, 떨어져 있지만 서로에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보여주었다. 두 무용수 간의 몸의 형태를 이용하여 작품주제를 더욱더 설명적으로 표현 하였다.

직선 형태와 곡선 형태의 방향변화를 조화롭게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그림 8> 플로어 패턴

3)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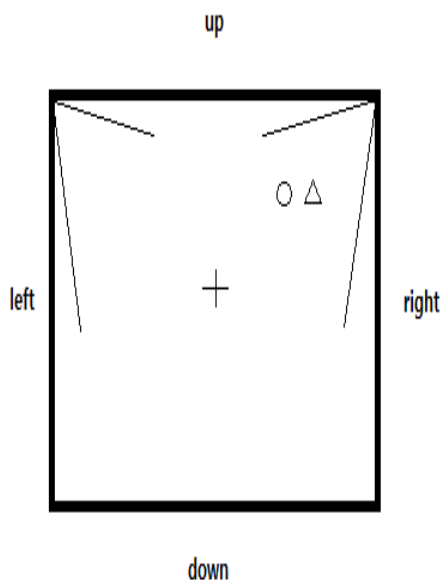
작품 안에서 가장 고조가 되는 부분으로 음악도 함께 최고조로 치닫는 부분을 이용해 표현하였다.

4) 무대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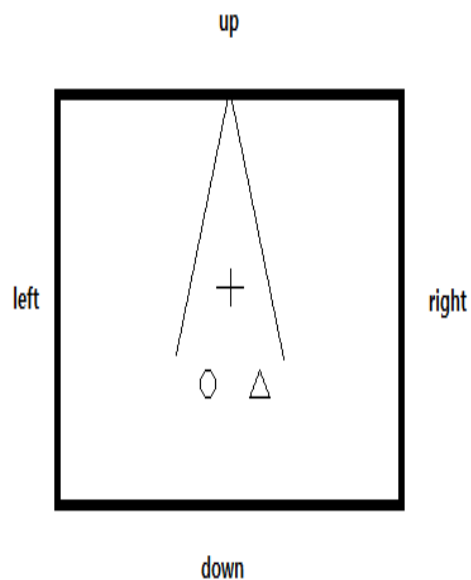
거친 질감의 표현을 위해 high side light조명을 이용하였으며, 무용수가 전달하고자하는 표정의 선명도를 위해 front light를 이용하였다.

위치 up right/ 밝기 20%/조명 high side light →

위치 down stage/ 조명back light, front light



<그림 9> 조명 플랜



<그림 9-1> 조명 플랜

3.4장면 4: 굴레의 반복.

1) 내용 및 안무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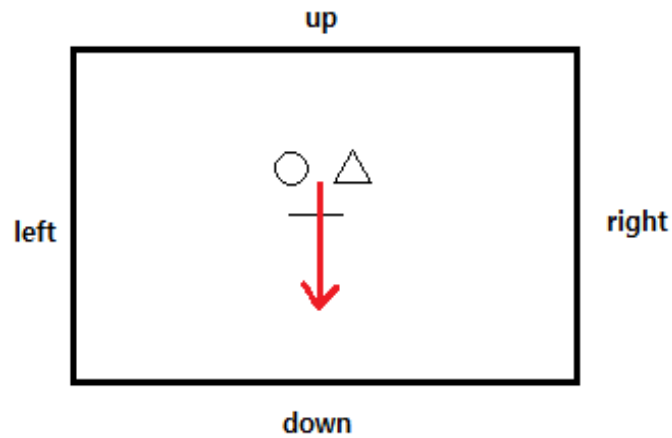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모든 행동들이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그 변화 속에서 또 다른 굴레를 만나게 되었고, 돌이켜 보니 굴레는 항상 내 곁에 존재해 있었다.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9> 굴레의 반복.

굴레 안에서 벗어난 듯하지만 다시금 굴레가 다가오며, 장면 1로 돌아가는 ABA형식으로 작품을 진행하였다.



<그림 10>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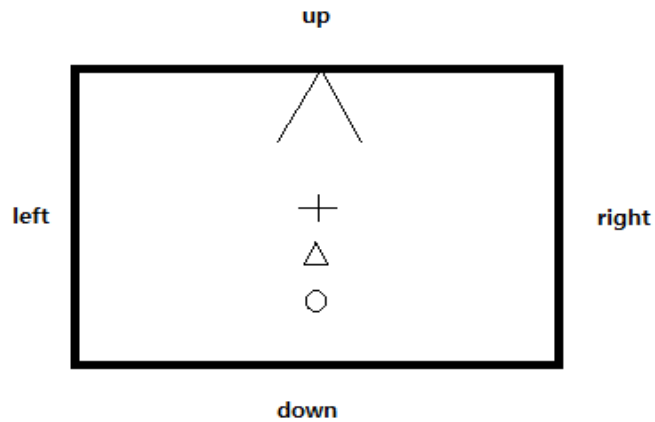
3) 음악

음악의 효과도 ABA형식으로 조화를 이루었으며, 작품의 감정선을 극대화 시켜 여운을 남겨주는 역할을 하였다.

4) 무대장치 및 조명

극적인 효과와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back light를 이용하여 작품의 표현 전달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

위치 down stage/ 밝기 10%/ 조명 back light



<그림 11> 조명 플랜

IV. 결 론

본 논문은 굴레라는 주제 안에서의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다. 굴레에 대해 실뜨기 놀이를 모티브 삼아 움직임 리서치를 진행하였으며, 몸을 이용하여 굴레에 대한 이미지를 실뜨기 놀이의 형태로 이미지화 하였고, 굴레에 대해 비문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굴레라는 존재는 두려워할수록 강하게 나타나며, 벗어나려 할수록 더 강압적으로 다가왔다. 굴레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감각은 끝도 없이 나를 괴롭힐 것이며, 쫓아올 것이다.

작품을 임하면서 굴레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그저 즐기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굴레라고 느끼지 못했다.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굴레라는 것은 상당히 내면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나의 생각 곧 공포(두려움)가 만들어 낸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 이었다. 이 작품을 통해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았고, 그것들은 작품에 투영하려 노력했다.

벗어나려고도 해보았고, 피해보려고 해보았고, 맞닥뜨려 이겨내 보려고도 하였다. 답은 굴레에 맞서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있었던 것이다.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으며, 그것이 소중한 재산이 된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다. 당장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들이 나에게 보석처럼 돌아올 것이다. 그 보석은 감히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고 대단한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 미래를 상상하며 매 순간의 감각들을 감사하게 느낄 것이며, 또한 배울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희선, 김창기, 이성호, 이종규, 천세기(2007). 『무대조명Ⅲ』. (주)교보문고.
- 데이비드 프라이드만(2012). 『장애물을 극복하고 놀라운 삶을 살기 위한
생각의 전환』. 권혜하, 김소희, 구영우(역). 경성라인.
- 산트라 커니 민튼(2013). 『안무법 즉흥을 활용한 기본적 접근』. 정옥조
(역). 서울: 한국학술정보.
- 석현수(2012). 『무대 예술인을 위한 실용서 STAFF』. 서울: 북마크.
- 엘리자베스 헤이즈, 조은미(역).(1993). 『무용 창작론』. 서울: 도서출판
정담.
- 이기수(2012). 『글레여 이젠 안녕』. 서울: 한솜미디어.
- 조승미, 오율자, 박경숙(1995). 『무용제작법』. 금광.
- 조안 초도로우, 임용자, 나해숙(역)(2003). 『춤, 동작 치료와 심층심리
학』. 서울: 물병자리.
- 테일러 클락(2013). 『너브』. 문희경(역). 서울: 한국경제신문 한경BP.
- 홍호기(2013). 가슴명상을 통해 만나는 두려움에 대한 『치유와 사랑으로
깨어나기』. 서울: 보리별 도서출판.
- Karen Horney(2006). 『신경증적 갈등에 대한 카렌 호나이의 정신분
석』. 이희경, 윤인, 이해리, 조한익(역). 서울: 학지사.

<인터넷 자료>

<http://blog.dreamwiz.com/bird32/1411578>

부 록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굴 레
일 시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pm7시
장 소	M 극장
안무자	김 소 연
출연진	김 소 연, 박 효 재
의상디자인	김 소 연
무대감독	김 재 원
조명감독	허 환
영상감독	김 정 환

팜플렛

HANSUNG
UNIVERSITY

2014 HANSUNG UNIVERSITY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석사학위
논문
청구작품 발표회

2014.11.21(금) 1부 저녁 7:00, 2부 저녁 8:10

충전용 M극장

주최 한성대학교 대학원

- 1부 -

전은선 / DAY DREAM

김소연 / 굴레

서라벌 / GROUND ANXIETY

- 2부 -

김지혜 / 시선에 막히다

유지혜 / 294일

김지영 / CRITICAL VIEW

굴레

출연 | 김소연 · 박효재

영계버린 굴레, 치근치근 풀려고 하지만 그 존재는 계속해서 따라온다.

굴레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는 과연 굴레에서 벗어난 것일까?



인무 | 김소연

Abstract

Analysis on the work of the confines

Kim, So-Yeon

Major in Dance perform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paper is the study and analysis of the way of expression in the theme of the confines. The mediator of the human being is having sense and sensibility.

They will make their thoughts, those thoughts are intend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human being and those become the means to live a better life.

We are always thinking. We are looking for a higher place and want to be more satisfied. Although we always eager to climb to a higher position each year, every hour and every minute, the goal in the time of those thoughts was already achieved.

Because the goal is achieved, a higher position is shown and more than that is pursued. Therefore, although being developed, we stand where things are changed and repeat the same thinking.

While recognizing the repeatability of such thought, I wanted to express that as the confines.

Like the confines, which we cannot leave even though we want, even though it looks out from the shackles of our own, we are still living not

departing from that.

While looking at myself who is trapped in the existence frame of the confines, I created the work thinking it as a challenge to escape from that.

I was able to look at the existence of the confines positively through this work and learned that I need to go further looking for a higher place from where I am while I may need to look back and take a deep breath at least once a while.

I think that the learning is endless and more hours invested will get more gain.

【Key words】 confines, time, objective, repeatability, changes